1. 인문계 논술문제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일반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는 모든 물질적 필요가 쉽게 충족되는 사회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이 관념은 진정한 '사회적 논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우리는 마셜 살린스가 '최초의 풍요로운 사회'에 관한 논문에서 주장한 견해를 따라야 한다. 살린스에 따르면, 몇몇 원시 사회의 경우와 달리 현대의 생산지상주의적 산업사회는 희소성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즉 시장경제의 특징인 희소성이라는 강박관념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다. 풍요로움이라 불릴 수 있는 상태는 인간에 의한 생산과 인간이 지니는 목적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다. 그런데 인간은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넘쳐나는 생산품들 속에서도, 그런 풍요로움의 상태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점점 더 멀어진다. 성장 사회가 충족시키는 것, 그 사회에서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더 충족되는 것은 생산의 명령에 따른 필요이지 인간의 '필요'가 아니다. 실제로 성장 사회의 존립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무지에 기초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사회에서 풍요로움은 한없이 뒤편으로 물러서고, 그 대신 희소성이 사회를 조직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살린스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나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원시 유목민족은 절대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알고 있다고 한다. 이 원시인들에게는 개인 소유물이 전혀 없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는 가졌던 것을 버린다.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생산을 위한 활동, 즉 '노동'이 없다. 말하자면 그들은 '한가롭게' 수렵하고 채집하며, 손에 넣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가진다. 그들은 아낌없이 낭비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단번에 소비하며, 어떠한 경제적 계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다. 원시 수렵채취생활자들은 부르주아의 발명품인 '호모 이코노미쿠스'(경제인)를 전혀 닮지 않았다. 그들은 경제학의 기본원칙들을 모른다. 그들은 인간의 에너지나 자연자원, 혹은 경제적으로 사용가능한 것들을 결코 완전히 활용하지는 않는다. 원시인들은 잠을 많이 잔다. 자연자원의 풍부함에 대한 신뢰, 바로 이것이 원시인의 경제체계의 특징이다. 반면에 현대인의 체계가 갖는 특징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시장경제와 보편적 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근본적이고 파국적인 불안감이다. 이 특징은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더 뚜렷해진다.

원시 사회의 특징은 집단 전체적으로 실행되는 '장래를 생각하지 않음'과 '아낌없이 낭비함'이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의 표시다. 반면 우리는 풍요로움의 기호(記號)만을 갖고 있다. 우리는 거대한 생산체계 속에 빈곤과 희소성의 기호를 몰아넣고 마음 졸이며 그것을 주시한다. 그러나 살린스가 말한 바와 같이, 빈곤은 재화의 양이 적은 데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단순히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빈곤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다. 자연자원의 풍부함에 대해 원시인들이 지닌 신뢰의 토대가 되고 그들이 배고픔 상태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는 것은 결국 사회관계의 투명성과 상호성이다. 여기서는 자연, 토지, 또는 '노동'의 도구나 생산물 등을 누가 어떠한 형태로든 독점하여 교환을 방해하거나 희소성을 제도화하는 일이 없다. 인간의 역사에서 축적은 항상 권력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원시 사회에서 그런 축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시 사회 같은 증여와 상징적 교환의 경제에서는 한정된 적은 양의 재화만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재화들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부는 재화를 바탕으로 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구체적인 교환을 바탕으로 하여 생긴다. 교환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도 각 교환의 순간마다 교환된 사물에 가치가 부가되고 교환의 순환은 끝이 없기 때문에, 부는 무한하다. 구체적이고 관계적인 이런 변증법은, 문명화되고 산업화된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경쟁 및 차별화 속에서 무한한 욕구와 결핍의 변증법으로 역전되어 있다. 원시 사회에서의 교환의

경우, 모든 관계는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다. 그에 반해 현대의 '차별화' 사회에서 모든 사회관계는 개인의 결핍감을 증대시킨다. 왜냐하면 원시 사회에서의 교환의 경우 소유물은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치를 얻는 반면, 현대 사회에서 소유물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상대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풍요로움이 상실되었으며, 그 잃어버린 풍요로움은 생산성을 한없이 증대해도, 새로운 생산력의 고삐를 풀어도, 다시 찾아질 수 없다. 풍요로움과 부는 사회조직 안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조직과 사회관계가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생겨날 수 있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넘어 아낌없는 낭비로 돌아갈 날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낭비가 아니라 '소비'가 있다. 그것은 영구히 지속하는 강요된 소비요, 희소성의 쌍둥이 자매다. 원시인들에게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풍요로운 사회를 체험하게 한 것은 그들의 사회적 논리였다. 우리를 호화스러운 빈곤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사회적 논리다.

(나)

산업화된 국가의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나 용도를 왜곡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 실제로 그 상품과 서비스는 구매자가 필요로 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것일 수 있다. 테오도르 슈토름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거지 아이는 행인들에게 "제발 사세요! 아저씨, 제발 이것 하나만 팔아주세요!"라고 애원한다. 옷가게 주인에서 수공업자와 대기업의 영업 담당자에 이르는 대부분의 공급자들도 그 거지아이처럼 애원한다. "여러분, 제발 사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애원한다고 판매고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공급자는 소비자를 교묘하게 설득하고 현혹해야 한다. 소비자는 공급자가 펼치는 판매 전략에 이끌려 환각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갖가지 빛깔과 음향과 향기, 행운의 약속과 연출은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공급자의 판매 전략 때문에 구매욕을 통제할 수 없었다거나, 판매 전략에 말려들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그들 중에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그런 구매자들에게서 환각 상태와 같은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의 브레이크를 약간 느슨하게 만들고 감정의 엔진을 한껏 돌리면 구매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산업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일수록 자본과 지식과 노동력의 더 많은 부분을 오로지 물건을 탐나도록 만드는 데 쓴다. 상품의 세계에서 소비자의 명백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물목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선 물건에 대한 욕구를 일깨운 다음 소비자가 평생 그 욕구를 위해 지출하도록 만든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욕구를 일깨우는 것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심지어는 충족시킬 경우 소비자가 해를 입게 되는 욕구조차 만들어진다. 소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

빵집이 다섯 개 있는 동네

우리 동네엔 빵집이 다섯 개 있다
빠리바게뜨, 엠마
김창근베이커리, 신라당, 뚤레쥬르

빠리바게뜨에서는 쿠폰을 주고
엠마는 간판이 크고
김창근베이커리는 유통기한
다 된 빵을 덤으로 준다
신라당은 오래 돼서
뚤레쥬르는 친절이 지나쳐서

그래서
나는 빠리바게뜨에 가고
나도 모르게 엠마에도 간다
미장원 냄새가 싫어서 빠르게 지나치면
김창근베이커리가 나온다
내가 어렸을 땐
학교에서 급식으로 옥수수빵을 주었는데
하면서 신라당을 가고
무심코 뚤레쥬르도 가게 된다

밥먹기 싫어서 빵을 사고
애들한테도
간단하게 빵 먹어라 한다

우리 동네엔 교회가 여섯이다
형님은 고3 딸 때문에 새벽교회를 다니고
윤희엄마는 병들어 복음교회를 가고
은영이는 성가대 지휘자라서 주말엔 없다
넌 뭘 믿고 교회에 안 가냐고
겸손하라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라며
내 귀에 테이프를 꽂아 놓는다

우리 동네엔 빵집이 다섯
교회가 여섯 미장원이 일곱이다
사람들은 뛰듯이 걷고
누구나 다 파마를 염색을 하고
상가 입구에선 영생의 전도지를 돌린다
줄줄이 고기집이 있고
김밥집이 있고
두 집 걸러 빵 냄새가 나서
안 살 수가 없다
그렇다
살 수밖에 없다

(라)

항 목 \ 연 도	1970	1980	1990	2000
국민총생산 (억원)	27,639	387,749	1,866,909	5,786,645
에너지소비량 (1,000 TOE*)	19,698	43,911	93,192	192,887
1인당 전력 소비량 (KWh/인)	240	860	2,200	5,060
총광고비 (억원)	127	2,753	20,001	58,534

*TOE: tons of oil equivalent; 원유 1톤이 가지고 있는 열량으로 전기 4천 KWh에 해당.

Ⅰ. 제시문 (가)를 4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20점)

Ⅱ. 제시문 (나)의 논지를 밝히고, 이것을 참고하여 제시문 (다)를 해설하시오.(40점)

Ⅲ. (라)의 표에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변화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1970년 이후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의미를 사회변동과 관련시켜 논술하시오.(40점)

※ 유의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에 제목을 달지 말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Ⅰ은 400자(±50자), Ⅱ와 Ⅲ은 각각 700자(±50자)가 되게 할 것.